



한수정,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제6기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입소식 개최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류광수)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제6기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입소식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산림청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수목원전문가 교육은 급격한 기후변화와 국가간 식물종 확보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수목원·정원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공인 교육과정이다.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은 10개월 간 총 1,440시간(이론 360시간, 실습 1,080시간) 동안 수목원의 고유기능(식물 수집·증식·보존·연구·전시·교육 등)을 배우고 운영·관리 하는데 필요한 현장실무 중심의 활동으로 구성됐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한창술 원장은 “변화하는 환경과 사회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인재를 양성해 수목원·정원 분야 전문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아시아 최대, 전세계 두 번째 규모(5,179헥타르)의 수목원으로서 전시·교육·연구 등 사내 전문가를 활용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책임자	실 장 남 춘 희 (054-679-0901)
	수목원서비스본부 수목원교육실	담당자	주 임 김 희 영 (054-679-0911)



1. 한창술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앞줄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이 2월 19일 제6기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입소식을 마치고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